

‘사이버 강의’ 유감

우리가 인터넷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그것이 지금까지의 대중매체와는 달리 쌍방향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이버 강의라는 실험을 통해 확인한 현실은 그러한 기대가 지나친 낙관주의의 결과일 뿐이라는 경고를 강력히 담고 있다.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는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활용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일이 결코 아니다.

최 근 대학에서는 ‘사이버 강의’ 라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사이버 강의는 전통적인 강의, 실내 강의를 대체할 21세기형 강의 방식으로, 교수와 학생이 사이버 공간을 적극 활용하며 진행되는 강의를 말한다.

이 방식은 마치 방송을 통해서 교육 기회를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었듯, 인터넷을 활용해 교육 기회를 다시 한번 획기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다는 기대 속에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 방식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장점으로 인해 많은 사람의 주목을 끌고 있다.

시공 초월한 활발한 의사소통의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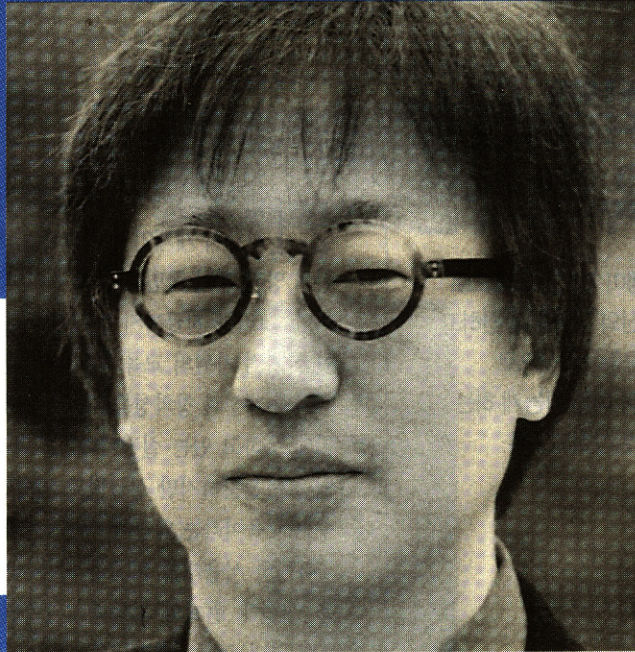
첫째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므로 강의실에 대한 물리적인 수요를 줄일 수 있다. 즉 한 주일에 3시간을 모두 강의실에서 직접 만나 강의하는 대신 1시간이나 2시간은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니 그만큼 강의실이 필요 없게 된다. 그러므로 사이버 강의는 대학의 고질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인 물리적 공간 확보라는 고비용 구조를 덜어 줄 수 있

다. 또한 교수와 학생이 강의에 참여하기 위해 반드시 학교에 나올 필요도 없다.

둘째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면 교수와 학생의 질문과 답변이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진행될 수 있다. 대학 내의 전산실은 물론이고 자신의 집이나 기숙사 혹은 동네의 컴퓨터 방 등 어디서든 편리한 때에 사이버 강의실을 방문해 자신의 의견을 가상 공간에 남길 수 있다. 또한 질문을 직접 하지 않는 학생이라 하더라도 다른 학생들의 질문과 그에 대한 교수의 답변을 모두 기록을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셋째 강의와 관련된 자료나 참고문헌 등을 복사해 주고받는 대신 사이버 공간에 필요한 자료를 띄워놓으면 학생들이 언제든지 받아 볼 수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는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또한 이 방식은 교수가 강의록을 사이버 공간에 올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필기를 해야 할 부담도 사라지게 된다.

넷째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기여를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다. 학생들의 출석과 질문은 물론이고 나



아가서 각각의 학생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이버 강의에 투입했는지도 자동적으로 기록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교수는 어느 학생이 수업에 관심이 많고 적은지 나아가서 어느 학생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지를 손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러한 까닭으로 사이버 강의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학생과 교수는 물론이고 대학당국과 교육당국 등 관련 당사자 모두가 사이버 강의로부터 일정한 혜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지 필자가 속한 대학에서도 사이버 강의를 하는 교수에게는 조교를 추가로 배정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실험적인 운용을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편승하여 필자 역시 지난 가을 학기에 사이버 강의를 시험적으로 운영해 보았다.

자발적 참여 저조한 사이버강의의 허와 실

그러나 그 결과가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한편으로는 앞에서 말한 장점들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예상치 못했던

심각한 부작용을 만나기도 하였다. 사이버 강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름 아닌 학생들의 '수동적 태도'였다.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가장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집단이 10대와 20대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의 사이버 강의에 대한 자발적 참여는 예상 밖으로 저조했다. 강의의 주제와 관련된 질문이나 토론을 사이버 공간에 스스로 개진하는 학생은 거의 없었다. 교수 혹은 다른 학생이 올린 관련 자료를 내려 받는 횟수도 턱없이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우리가 인터넷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그것이 지금까지의 대중매체와는 달리 쌍방향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 주는 매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인터넷의 이러한 특성이 21세기의 주역인 신세대와 아무런 문제없이 결합될 것으로 믿어왔다. 그러나 사이버 강의라는 실험을 통해서 확인한 현실은 그러한 기대가 지나친 낙관주의의 결과일 뿐이라는 경고를 강력히 담고 있다.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는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활용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일이 결코 아니다. ■